뼈 도둑

전성태

소설가

지명으로는 골짜기였을 것으로 짐작되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골짜기의 흔적을 찾을 길 없는 산104번지 일대가 유해 발굴지였다. 아파트 정문에서 등산로 초입에 이르는 비탈에 수풀이 뒤덮은 맹지가 있었다. 그곳에 폴리스라인처럼 금줄이 쳐지고, 칠월 땡볕 아래인데도 족히 이백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고개를 빼고 있었다.

지훈은 어제 열린 개토제(開土祭)를 취재했다. 그는 산104번지 사건을 '페니실린 병'이라는 가제로 다큐멘터리로 제작할 계획이었다. 일찌감치 취재단에 등록해 뉴스 릴리스도 받고 있었다. 유해발굴단의 발표대로라면 오후쯤 스물다섯 구의 유해 중 최초의 유해가 수습될 예정이었다.

발굴단장의 지휘 아래 중장비가 표토 제거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현장을 메운 인파는 진실화해위원회나 시청과 의회, 시민연대, 연구소와 같은 유관기관 사람들이거나 취재기자들, 인근 시민들일 텐데 해당 유족들이 얼마나 나타났는지, 누가 유족인지 알 길이 없었다. 진실화해위의 조사 기획관은 산104번지 희생자들의 경우 유족이 피해 신고를 한 경우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누구라도 곡소리를 낸다면 금방 알아챌 수 있을 텐데 모두 침통한 표정으로 묵묵히 지켜보고 있을 뿐 눈에 띄게 동요하는 사람은 없었다.

산책로에서 방송사 카메라들이 여자 노인을 세워놓고 워딩을 따고 있어서 지훈도 카메라를 켜고 조심히 끼어들었다. 노인은 다른 지역 실종자의 유족인 것으로 보였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보도연맹 사건 때 청주에서 돌아가셨다는데 아직 유해를 찾지 못했어요. 이번 발굴을 계기로 아버님 유해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칠십 년 전, 군인들이 이 도시에서 이천여 명의 민간인을 집단 학살했다. 일군의 군인들이 봉기해 사흘간 도시를 점령했고, 그때 봉기군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토벌대가 무고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 일부 희생자들은 도시를 두른 산자락의 골짜기 여러 군데에 암매장되었다. 그들은 행방불명자로 남았다. '골로 간다'는 말이 있다. 죽는다는 의미의 이 관용구가 골짜기로 끌려간다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다시 주목을 받았는데 산104번지야말로 사례처럼 보였다.

산104번지 희생자들은 한 마을 주민 스물일곱 명이었다. 저녁밥 지을 무렵에 군인들에게 끌려 나와 학교 담장 아래에서 총기 난사를 당했다. 희생자들에는 세 살 아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시신 두 구는 당시 유족이 수습하고, 나머지는 인근에서 목회활동을 하던 미국 선교사가 인부를 고용해 선교회 소유의 이 땅에 가매장했다.

산104번지 매장지는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전부터 지역 시민단체의 오랜 문헌조사, 탐문조사를 통해 꽤 알려져 있었다. 선교사의 회고록이 미국에서 발굴되었고, 무엇보다도 직접 시신을 매장한 네 명의 인부 중 생존자 노인을 찾아서 매장지를 특정할 수 있었다. 유일한 목격자였던 노인도 그후 사망해 지금은 없지만 그의 증언에 따르면 구덩이를 서너 개 너르게 파고 네댓 구씩 시신을 침상에 눕히듯 나란히 매장했다고 했다. 일가인 경우 되도록 함께 묻었다.

무엇보다 선교사는 훗날 시신을 제대로 수습할 수 있도록 고무 재질의 뚜껑이 달린 페니실린 1그램짜리 병에다가 희생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적은 쪽지를 넣었다. 그걸 품에 안겨 매장했다. 선교사나 인부들은 자신들이 가매장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했지만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를 줄 몰랐을 것이다. 산104번지 매장지가 특정되고 첫 발굴 대상지가 된 것도 군인들에 의한 암매장이 아니라 민간에 의해 시신이 수습되었기에 가능했다. 아파트 주민들이야 주거지 근방이 그런 끔찍한 곳인지 모르고 살다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마을 토박이 노인들은 매장지가 구전으로 전해져서 알고 있었다. 개발 광풍에도 칠십 년 동안 매장 현장이 나대지로 그대로 남은 것도 그곳이 흉한 터인 걸 알음알음 알고 있어서였다.

다만 오늘날까지 유족 증언자가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게 아쉬웠다. 아무래도 일가족이 몰살된 경우가 많았고, 살아남은 유족이 있더라도 그 일 이후로 이 마을을 떠났으리라 추정했다. 그리고 칠십 년이 지났다. 그해에 태어난 사람이 일흔 살이 되었을 시간이었다. 증언자들도 대부분 그날 일을 전해들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은밀하게 진행된 매장을 직접 목격한 이들도 없었다. 아쉬운 건 지훈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유족을 한두 사람 섭외해 그들의 사연을 긴 시간의 영상에 담을 계획이었는데 석 달 동안 뻔질나게 이 지역을 방문했는데도 아직 유족들을 찾을 길이 없었다. 학살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희생자 신고를 접수하면 그때나 당당하게 나타날

까 싶었다.

희생자들이 매장되기 전에 그곳은 선교회의 채소밭이었고, 선교사들이 철수한 뒤로는 한동안 버려져 있었다. 이주민들이 늘면서 사정도 모르고 텃밭을 일구려고 들기도 했다. 한때는 일부 주민들이 코스모스인지 달맞이꽃인지 씨를 뿌려 밭을 갈아먹지 못하게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텃밭을 일구는 손을 막지 못했다. 그럴 때 노인들은 땅을 깊이 파지 말고 경작하라고 당부했다.

"삐라도 나와 봐, 동네가 어떻게 되겠냐고."

노인정에서 만난 노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몇 년 전부터 지역 시민단체를 통해 산 104번지 학살이 공론화되면서 그곳은 다시 묵정밭이 되었다. 지훈은 답답한 마음에 노인들에게 물었다.

"텃밭을 일구다가 일부라도 유해가 발굴이 되었더라면 오늘날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요."

노인들이 손사래를 쳤다.

"기자 양반이 젊어 뭘 모르는구먼. 정부에서 잘못했다, 딱 인정을 해줘야 인저 나오제 그 전에 나와서 쓰겄어? 못 나오제. 더 지켜봐야겄지만 세상이 바뀌고 있응게 인저 나오지 않겠더라고. 이나마도 우덜이 말을 내놓는 것도 변한 세상 덕이야. 전에는 입도 뻥긋 못했어. 순 빨갱이 마을이라고 낙인을 찍어부렀는디 숨이라도 쉬고 산 게 용하지."

그러나 노인 중에는 유해 발굴에 회의적인 의견도 있었다.

"누구 본 사램이 있느냔 말이제. 그랬다더라 말로만 전해 들었제, 당장 거기 묻혀 있을 거라고 누가 장담해. 시간은 또 얼매나 흘렀어. 아파트도 들어서고 산복도로도 뚫렸는걸. 인저 누가 알어."

그러자 다른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 그런 소문도 있었잖여. 사건 있고 몇 년 새에 유족들이 하나둘 나타나서 몰래 수습해갔다고."

"아따, 그건 소문 아니더라고. 암도 보지 못한 걸 얘기해서 뭐해."

지훈은 시간의 아이러니를 느꼈다. 마치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능을 발굴하듯 발굴 현장은 얼마간 호기심도 팽배해 있었다. 오후 두 시 무렵에 표토층을 걷어내는 작업이 끝나자 생토층이 나왔다. 포클레인이 철수하고 열 평 남짓한 발굴 현장 위로 천막이 쳐졌다. 인근 대학의 박물관 연구원들로 꾸려진 발굴단이 수작업을 시작했다.

머잖아 유골이 나오고, 페니실린 병도 찾을 수 있으리라 짐작했는데 유골은 생각보다 쉬 발견되지 않았다. 긴 기다림의 시간이 될 듯했다. 구경꾼들이 저지선에서 물러나 소풍객들처럼 아

파트 담장 가의 나무 그늘로 삼삼오오 물러나 앉았다. 지훈은 노인정에서 만나 낯을 익힌 남자 노인들을 발견하고 느티나무 밑으로 갔다. 그렇지 않아도 한 번 더 만나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노인정에서 온 노인들은 모두 셋이었다.

"저 기억하시겠어요?"

지훈은 반갑게 인사했다. 노인들도 금방 알아보고 맞았다.

"오살나게 더운디 얼른 안 나오네이."

지훈은 양해를 구하고 카메라를 노인들 앞에 세웠다.

"저기를 꽃밭으로 만든 적이 있다고 하셨죠?"

노인들이 두릿두릿 서로를 쳐다보며 되물었다.

"우리가?"

"자꾸 텃밭을 갈려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것 막느라고 코스모스 밭을 만들었다고요."

저번에 유해 발굴이 쉽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노인3이 입을 열었다.

"꽃밭은 박 씨인가 김 씨인가 철공소 하던 사람이 했제, 아마."

그러자 곁에 앉은 노인2가 노인3에게 되물었다.

"그 아재가 철공소를 했어, 고물상을 하지 않고?"

묵묵히 앉았던 노인1이 입을 열었다.

"하여튼 꽃밭은 그 사램이 맹글었어. 그도 나가 국민학생 때라 참 먼 일이네. 그 사램도 여기 주민이 아니라 어느 날 불쑥 나타났어. 저 우에 집 같지도 않은 빈 오두막 한 채가 있었는디 거그 들어서 한 삼 년 살다가 동네를 떠났제. 소리 소문도 없이. 그땐 그런 사램들이 쌨어."

세 노인들의 증언이 조금씩 달랐지만 꽃밭을 일군 사람은 외지인이었던 그 남자가 분명했다.

"그 사람이 왜 꽃밭을 일구었을까요?"

"그거야 묘를 지키려고 그랬겄제."

노인1은 당연한 걸 묻는다는 투였다.

"외지인이 거기에 스물다섯 구의 시신이 암매장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고요?"

"어디서 들었겄제."

노인1이 시들해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노인3이 구시렁거리는 소리로 말했다.

"참말로 왜 그랬을까? 어른들이 기냥 흉한 밭을 좋게 맹글었다고 찬사는 했어도 트집 잡는 건 못 봤어. 다덜 흉하지만 지케야 된다는 맴으로 살 때라 그랬으까……."

"제 생각인데요, 혹 유족이었을까요?"

노인들은 알 길이 없었을 것이다. 노인들은 자기들끼리 그 사내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리고 맞춰 나갔다. 철공소를 했는지 고물상을 했는지 정확하지 않았다. 인상이 험상궂었다는 노인도 있고, 아이들에게 친절했다는 노인도 있었다. 살림을 했는지 홀몸이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렇게 오후 다섯 시가 되었다. 작업이 중단되고 발굴단과 유관기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머잖아 현장 브리핑이 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람들이 그늘에서 나와 현장으로 모여들었다. 발굴단장과 진화위 기획관이 브리핑을 시작했다. 발굴단장을 맡은 교수는 생토층을 확인한 결과 사람의 손길이 닿은 적 없는 생토이며, 따라서 매장 흔적이 없다고 했다. 진화위 기획관은 오랜 시간이 지나며 지형변화가 심해 더 광범위한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사람들이 술렁거리며 아파트 단지와 아래의 산복도로를 바라보았다.

"또 기다려야 한단 말여! 칠십 년이 부족해서 또 기다리라는 소리여!"

군중 속에서 노인 한 사람이 소리쳤다. 그가 유족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다. 그가 유족이 아니더라도 이 도시 사람들이라면 할 수 있는 소리였다. 매장지 주변이 묵연해졌다.

지훈은 비탈길을 내려오면서 꽃밭을 일군 남자를 계속 떠올렸다. 밤이면 꽃밭에 들어앉아 유골을 하나씩 캐내서 마대자루로 옮기는 사내를. 처음에는 제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형제를 찾으려고 시작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일이 커졌는지 모른다. 사내는 유해들을 어떻게 했을까? 어딘가 더 안전한 장소에 모시지 않았을까. 지훈은 고개를 들어 남에서 서로 도시를 에운 산의 능선을 바라보았다. 더 깊은 골짜기였을까? 아니면 끼고 다녔을지도 모른다. 태우고 빻아서 유골함에 넣고 이름도 찾아 새겼을까. 그러나 그도 나이가 들어 자신의 증언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등졌다면? 유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는 발 아래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들쭉날쭉한 구옥들과 불쑥 솟은 빌딩들이, 지지 않는 여름 해를 반사하며 제 형체를 감추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할까? 지훈은 자신의 다큐멘터리 작업의 제목을 바꾸기로 했다. '뼈 도둑'이었다.

<끝>

• **전성태:** 1969년 전남 고흥 출생. 1994년 실천문학신인상 수상. 소설집 『매향(埋香)』, 『국경을 넘는 일』, 『늑대』, 『두번의 자화상』 장편소설 『여자 이발사』, 산문집 『세상의 큰형들』, 『기타 등등의 문학』 3인 르포집 『길에서 만난 세상』, 평전 『김주열』 등이 있음. 신동엽문학상, 채만식문학상, 오영수문학상, 현대문학상, 이효석문학상, 한국일보문학상, 아름다운작가상 수상.